티베트 대장경 '깐규르' 영어로 25% 번역

비영리 단체 84000 불전 번역
2009년 학자 등 50여 명 동참
완역후 온라인 출판…무료제공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 대장경 번역을 위해 대토론회가 열렸던 2009년의 모습.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부탄 출신의 저명한 불교지도자인 종사르 켄체 린뽀체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 '84000 불전번역' 은 티베트 달력으로 음력 4월을 맞이하여 티베트 대장경 가운데 '깐규르' 의 25%를 모두 영어로 번역했다고 발표했다. 84000 불전번역 측은 이 모든 번역물들은 온라인을 통해 출판되며 무료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온라인 국제불교 전문 매체인 '부디스트도어 글로벌' 은 이 대작불사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티베트 대장경은 14세기에 정리되었으며 경율론 삼장을 둘로 나누어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장과 율장을 '깐규르(佛說部)', 논장을 '땐규르(論疏部)' 라고 칭한다. 이중 깐규르는 10종 103책으로 7만 페이지에 900개 가까이 되는 경들이 수록되어 있다. 84000 불전번역 측은 "2009년에 티베트 불교 지도자들을 비롯해 학식이 높은 스님들과, 불교 원전 번역가, 학자, 후원자 등 50명 이상이 모여 티베트 대장경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 이를 통해 범어 원전에서 기원하는 불전의 95%가 여전히 고전 티베트어로만 존재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23만 페이지가 넘는 원전이 있음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어려우며,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찬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며 역경사업이 시작된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84000 불전번역 측은 최근 〈1만 8천송반야경〉을 영어로 모두 번역하였고, 티베트력 음력 보름인 6월 14일 공개했다. 이 공개에 따라 깐규르의 4분의 1이상이 모두 영어로 완역됐다. 84000 불전번역의 전무이사 황징루이는 부디스트도어 글로벌과의 인터뷰에서 "티베트 불교에선 부처님의 탄생, 성도, 열반이 모두 4월 보름 이루어 졌다고 하며 이를 '싸가다와 뒤첸' 라는 기념일로 삼아 특별히 여긴다. 이 날에 맞춰 티베트 불경 중 가장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1만 8천송반야경〉을 전세계에 공개하게 됨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황징루이는 "대작불사에, 특히 티베트 불교 모든 종단들과 불법 증장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후원자들의 지원에 힘입어 계속해서 역경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 고무된다" 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12년 전 설립된 이래로 역경 작업은 티베트 학자와 서구 학자를 비롯한 전 세계의 번역가 팀에 600만 달러(한화 약 77억 6천만 원) 이상을 지원했다. 현재 역경작업은 옥스퍼드, 비엔나,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같은 해외 명문대들을 비롯해 네팔의 랑중예쎄 인스티튜트와 인도의 전통강원 교육을 받은 스님들의 노력으로 지어지고 있다. 84000 불전번역 측은 "100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깐규르와 땐규르 모두 영어로 역경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25년간 깐규르를 완역하고, 이어서 땐규르의 번역에 집중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역경팀에 따르면 현재 티베트 대장경의 5% 미만이 현대언어로 번역되었으며, 고도의 학식이 필요한 땐규르는 100년 가까이 새로운 영어 완역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84000 불전번역 측은 "모든 히말라야 문화권 불교전통의 근원이 되는 이 대장경에 대한 미래세대의 용이한 접근을 위해 세계최대의 지혜의 기록을 보관하는 장소 중 하나를 만든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며 불법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日, 불교축제 '아오바 마츠리' 3년 만에 개최

6월 15일 탄생일 맞아 전국서 개최
진언종 종조 '코보대사' 탄생 기려



가마에 올라 꽃잎을 뿌리며 행렬을 장엄하는 참가자들. 사진출처=NHK 방송화면 캡쳐

세계문화 유산이자 일본불교의 성지인 고야산(高野山)에서 개산조이자 진언종의 종조인 코보대사(弘法大師)의 탄생을 기리는 축제 '아오바 마츠리' 가 3년 만에 개최됐다.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규모를 축소했지만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순례객들로 성황리에 봉행됐다. 6월 14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NHK 뉴스' 등은 다시 개최된 불교 축제에 대해 보도했다.

코보대사 쿠카이(空海)의 탄생을 기리는 축제 '아오바 마츠리(靑葉祭)' . 매년 탄생일인 6월 15일에 맞춰 일본 전국의 진언종 사찰에서 법요가 봉행된다. 특히 생전 근본도량을 주석하고 입적했던 고야산의 경우 산중 전체가 봉축분위기에 휩싸이며 큰 축제로 개최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과 감염방지 등을 이유로 지난 3년간 축제가 중지, 진언종 총본산인 콘고부지(金剛峰寺)에서 대중스님들만이 모여 법요를 봉행했다.

올해 방역완화와 함께 경기부흥 등을 위한 대책으로 다시 아오바 마츠리가 개최됐다. 6월 15일 오전 고야산 법당에서 100여 명의 대중스님과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코보대사의 탄생을 기념하는 강탄제(降誕祭) 법요가 봉행됐다. 스님들은 범패와 염불로 코보대사의 은덕을 찬탄하고 동자 대사상에 관욕수를 부어 씻기는 관욕의식을 봉행했다.

이후 콘고부지를 기점으로 기념 행렬이 진행됐다. 축소 진행된 관계로 1.5km의 짧은 행진이었으나 고야산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장엄등을 비롯해 어린 코보대사로 분장한 어린이와 4명의 여학생들이 가마에 올라 꽃잎을 길에 뿌리며 축제의 아름다움을 더했다. 특히 연잎 모양으로 만든 종이꽃잎을 아오바 마츠리의 기념품으로 줍기 위해 참배객들이 길가에서 장사진을 이루는 등 예년과 같이 붐비는 모습을 보였다. 가마 뒤를 따라서 찬불가를 부르는 스님들의 행렬과, 코보대사의 은덕을 기리는 노래에 춤을 추는 지역주민의 행렬도 이어졌다.

나라에서 찾은 여성은 "코보대사님과 생일이 같기에, 언젠가 반드시 이날 고야산에 오고 싶었다" 면서 "다시 축제가 개최되어 너무나 기쁘다" 고 전했다. 오사카에서 방문한 부부는 동자대사상에 관욕수를 부으며 "대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며 손을 모았다. 고야산 대학에서 수학중이라는 한 스님은 "1200년 전에 태어나신 대사님 덕분에, 지금도 그 가르침을 생생하게 이어가며 배울 수 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겠다는 계기가 됐다" 라고 감상을 전했다. 이번 축제 행렬에는 약 800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축제를 기획한 마츠야마 유다이 고야산 봉찬회장은 "내년은 종조 코보대사의 탄생 1250주년을 맞는다. 다시금 부활한 열기를 살려 오는 아오바 마츠리를 맞이하고 싶다" 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로힝야족 난민들, 본국 송환 요청…왜?

범죄 · 생활고 각종 위험 처해
"고향 가겠다" 대규모 시위도


사진출처=pikiran-rakyat.com

미얀마 군부의 소탕 작전을 피해 방글라데시 등으로 피신한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난민들이 본국으로 송환을 요청하고 나섰다.

6월 19일 AF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로힝야족 난민들은 이날 방글라데시 남동부 콕스바자르 지역에 위치한 난민 캠프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자"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세계 난민의 날' (6월 20일)을 앞두고 열린 이번 집회에는 최대 1만여 명의 로힝야족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로힝야족 난민 대표인 사예드 울라는 "우리는 더 이상 난민 캠프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 집으로 가겠다"며 "이곳은 지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부의 핍박을 피해 타국으로 피신한 이들이 본국으로 송환을 요청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해당 매체에 따르면 로힝야족 난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생활고, 인신매매 등 각종 위험에 처해있다. 일부 여성들과 아이들은 성매매 위험에까지 노출돼 있어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 내전을 겪겠다는 게 로힝야족 난민들의 판단이다.

실제 약 100만 여 로힝야족 난민들이 거주 중인 콕스바자르 지역 난민 캠프는 움막 형태의 간이 주거 시설이 설치돼 있다. 화장실조차 구비돼 있지 않았고, 벌써 올해만 6차례 화재가 발생할 만큼 환경이 열악하다.

특히 현지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로힝야족 남성들은 범죄까지 가담하는 실정이다. 합성 마약 '야바' 를 밀거래하거나 현지 브로커들과 결탁해 로힝야족 여성들과 아이들을 유흥업소 또는 농장 등에 팔아넘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글라데시 정부는 최근 미얀마 정부와 회담을 열고 "로힝야족의 본국 송환을 시작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올해 10월께 몬순 우기가 끝난 후 송환이 시작되길 바란다" 는 게 방글라데시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미얀마 정부는 이렇다 할 확답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홍콩 불교도, '국가 부도' 스리랑카에 나눔

BDCHK, 취약계층 자비나눔
2억 4700만 원 상당 생필품


사진출처=BDCHK 페이스북

홍콩 불자들이 국가 부도를 맞은 스리랑카의 취약계층을 위해 생필품을 기증했다.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udhist door)는 6월 17일 "홍콩의 붓다다르마센터(The Buddha-Dharma Centre of Hong Kong, 이하 BDCHK)가 스리랑카 취약계층 가정에게 음식, 상비약 등 생필품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운동을 벌였다"며 "기금 중 일부는 스리랑카 교육기관에도 기부된다"고 보도했다.

BDCHK 공식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들은 4월 27일부터 '스리랑카 구호기금' 모금을 시작해 약 150만 홍콩 달러(한화 약 2억4778만 원)를 모금했다. 쌀 · 렌틸콩 · 식용유 등 약 20달러 상당의 물품을 900가정에게 배포했다.

BDCHK의 책임자 K.L 담마조티(K.L, Dhammajoti)는 "스리랑카 구호기금모금에 참여한 불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여러분의 깊고 따뜻한 반응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 사용처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니 안심하길 바란다" 며 "우리는 지금까지 약 40만 홍콩 달러를 소요해 8개 마을에 생필품을 배급했다"고 덧붙였다.

생필품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들에게 우선 배급됐다. 각 마을의 사찰들이 이들에 대한 배급을 담당했다. BDCHK는 앞으로 스리랑카 다른 마을에까지 생필품을 배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국가 부도를 선언한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주력 산업인 관광 부문의 붕괴, 지나친 감세 등 재정 정책 실패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박정현 객원기자

